

직접 만드는 아시아 문화... "ACC서 체험해 보세요"

'2025 ACC 아시아 예술체험'

20일부터 누리집서 신청 접수 전년비 42% 확대...44회 운영 튀르키예·인도네시아 공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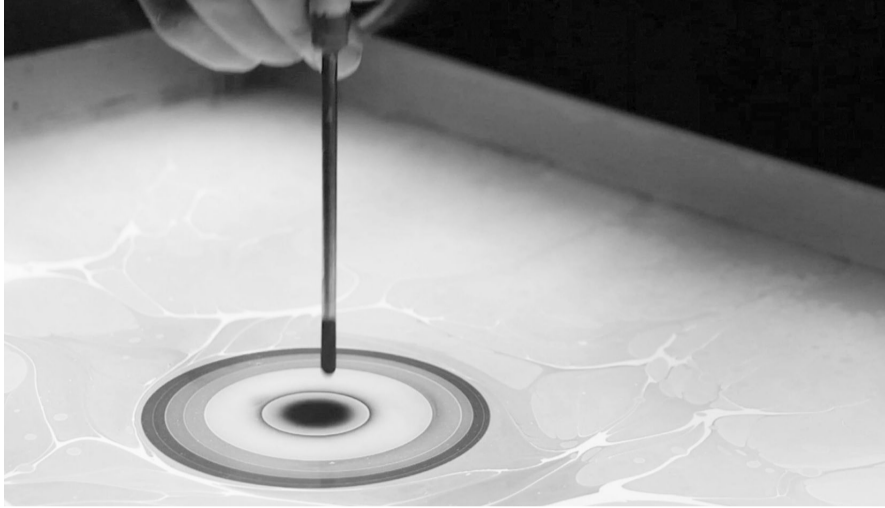
아시아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획으로 호평을 받은 'ACC 아시아 예술체험' 사업이 올해 더욱 확대돼 광주시민을 맞이한다.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따르면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해 볼 수 있는 '2025 ACC 아시아 예술체험'은 올해 ACC 문화정보원 문화교육실 1에서 총 44회 운영된다.

'ACC 아시아 예술체험'은 지난 2022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체험을 통해 아시아 문화가치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3년간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호응을 끌었고 올해는 지난해 31회에서 42% 확대해 총 44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더욱 다양해진 주제와 늘어난 참여자 정원 등으로 이목이 쏠린다.

먼저 첫선을 보이는 튀르키예의 '에브루(Ebru) 아트' 강좌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총 6회 열린다. '에브루'는 오스만 제국 시절 튀르키예의 화가와 서예가가 새로운 방식으로 창안한 마블링 기법으로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튀르키예의 '에브루(Ebru) 아트' 강좌. ACC 제공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교육 참여자들은 '에브루' 특유의 재료인 소의 담즙을 사용해 수면 위로 펼쳐지는 튀르키예 예술을 체험하고 작품을 제작하는 등 이색 경험을 할 수 있다. 수업은 튀르키예에서 온 '에브루' 작가가 직접 진행해 현지 예술을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3~11월에는 한중일 3국의 전통회화가 지닌 철학적 배경과 특징을 알아보는 '동아시아 전통회화' 강좌가 진행된다. 이 강좌는 한국 전통 회화인 '민화'의 재료와 사용법, 표현 기법에 대해 배우고 직접 그리며 재해석할 수 있는 자리다. 광주비엔날레 참여 등 한국화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윤세영 작

가 강의를 맡는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아시아를 새기다' 강좌는 참여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올해 정원을 20명으로 늘려 운영된다. 오는 5월에 열리는 이 강좌를 통해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돌에 새겨 인장(印章)을 제작하고 소장할 기회가 제공된다. 이 같은 체험 외에도 참여자들은 아시아 문명을 중심으로 문자와 인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는 등 인문학적 시각을 넓힐 수 있다.

앞서 이달 진행돼 인기 강좌임을 확인한 '인도네시아 공예-바틱(Batik)'도 오는 8월 한 차례 더 ACC를 찾는다. '바틱'은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면(綿)·견(絹)에 염색하는 공예



'인도네시아 공예-바틱(Batik)' 강좌는 오는 8월 열린다. 사진은 이달 진행된 해당 강좌 현장. ACC 제공

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삶에 오롯이 스며들어 있다. 참여자들은 생활과 문화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는 문양을 배울 수 있다. 또 밀랍을 녹인 후 '바틱' 작업에 필요한 전통도구인 '찬팅(Tjating)'으로 밀그림을 그려 염색한 후 밀랍을 제거하는 등 '바틱'의 모든 작업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오는 12월 열릴 '아시아 공예-나전칠기(螺細漆器)' 강좌는 조개, 소라, 전복 등의 껍질로 기물(器物)의 면과 가구의 면을 칠과 함께 장식해 완성한 공예품인 '나전칠기'를 다룬다. 아시아 5개 권역에서 발달한 공예의 특징을 접하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한 옷칠공예와 함께 한국 나전칠기의 역사와 기법을 들

어다볼 기회다. 특히 참여자들은 패턴을 디자인하고 여러 종류의 자개를 붙여 나만의 특별한 나전칠 공예품을 제작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 접수는 20일부터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상욱 ACC 전당장 직무대리는 "꾸준히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ACC 아시아 예술체험' 교육은 다양한 아시아 문화예술에 대한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내 손으로 그리고 만드는 경험을 통해 더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연주와 기획이 만나는 색다른 무대"

최혜지 아르플레닛 대표 독주회 내달 22일 서울 푸르시오 아트홀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클래식 음악 예술단체 아르플레닛의 대표이자 피아니스트인 최혜지의 색다른 연주가 서울을 무대로 펼쳐진다.

19일 아르플레닛에 따르면 다음달 22일 오후 5시 서울 푸르시오 아트홀에서 '최혜지 피아노 독주회'가 개최된다.

최 대표는 그간 섬세한 음악성과 감각적인 해석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는 광주 금호아트홀, 서울 영산아트홀, 광주 디엠홀,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등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쳤고 클래식 공연 기획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아르플레닛의 기획, 홍보, 디자인까지 직접 총괄하며 다수의 공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독주회는 최 대표가 단순한 피아노 연주뿐 아닌, 직접 독주회 기획·홍보, 포스터 디자인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한 무대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무대를 통해 최 대표의 기획자로서의 무대 구성 능력과 연주자로서의



음악적 깊이와 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은 베토벤, 브람스, 프코피에프의 작품들로 구성됐다. 고전주의부터 낭만주의의 20세기 음악까지 다양한 시대를 아우르는 곡들을 통해 독창적이면서 깊이 있는 해석과 감성을 담아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아르플레닛 관계자는 "기획자로서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 온 최혜지 피아니스트의 이번 독주회는 그가 연주자로서도 빛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지 피아노 독주회'는 네이버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8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입장할 수 없다.

한편 최 대표는 이번 공연 이후 오는 4월 전남대학교 예향홀에서 졸업 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찬 기자

"과학 소통의 주역을 찾습니다"... 루체스타 제9기 단원 모집

국립광주과학관 청소년 홍보소통단

내달 18일까지 이메일 접수 다양한 시상 등 혜택 강화

국립광주과학관은 과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열정을 기울 뜻깊은 활동에 참여할 청소년들을 찾는다.

19일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청소년 과학문화 홍보소통단이자 과학커뮤니케이터 역할을 수행할 루체스타 제9기를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호남권역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으로 과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과학을 함께 이야기하고,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총 100명의 단원을 모집하며 활동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이다.

'루체스타(Lucestar)'는 국립광주과학관의 빛나는 별을 의미한다. 2017년에 시작해 올해로 제9기를 맞이했으며 명실상부한 호남권역 대표 청소년 대외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루체스타의 주요활동은 △과



국립광주과학관은 청소년 과학문화 홍보소통단이자 과학커뮤니케이터 역할을 수행할 루체스타 제9기를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제8기 루체스타 발대식.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학관 전시·교육 등의 행사 참여와 홍보활동 △과학실험, 콘텐츠 제작 등의 과학문화 확산 활동 △다양한 콘테스트 참여 등이다.

루체스타 단원에게는 국립광주과학관 상설전시관·특별기획전 무료 이용(월1회, 동반 3인까지), 1일 교육프로그램 무료 이용(월 1회, 단원 한정), 봉사활동 실적 인정(월 3시간)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연말 우수활동 단원 선정 시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명, 광주시장상 1명, 광주시교육감상 1명, 국립광주과학관장상 10명), 동아시아연구소 과학콘텐츠 할인(발간지 정기구독권 25% 할인 및 1개월분 제공, d라이브러리 ALL패스 1개월 무료체험권 제공) 등

등 더욱 확대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유야 국립광주과학관 연구원은 "올해 루체스타는 광주시교육감상 신설을 비롯해, '루체스타 특별캠프' 전용 행사 개최, ESG 기반 환경 캠페인 등 콘테스트 형태의 다각화를 통해 활동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라며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성장하고 싶은 호남권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제9기 루체스타 인원 모집은 이메일(lucestar@sciencecenter.or.kr)을 통해서 접수받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홍보협력실(062-960-6172)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공고는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